

바다에서 시작해 산으로 들어가, 일본 현지에서 보내는 4일간

로컬 생활 체험 투어

시만토: 산과 강 × 농업

니요도가와: 자연 × 가정

태평양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 농촌 풍경, 산촌의 가정, 그리고 역사와 지혜가 깃든 마을로.

투어소개

이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투어가 아니라, 일본 깊숙이 자리한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이 맺어온 관계를 온몸으로 느끼는 체류형 여행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 농촌 풍경, 산촌 가정집, 그리고 역사와 지혜가 깃든 마을로 이어집니다. 3일간의 여정을 통해 '일본의 지방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차례대로 따라가봅니다.



일정소개

일정	장소	일정내용	숙소
1day	나카토사초 시만토초	【카미노카에 어협(어부 체험)】—【시만토강(야카타부네)】—【침하교 산책】—【EKIMAEHOUSE SAMARU】 — 【저녁 식사 및 교류회】	EKIMAEHOUSE ESAMARU (게스트하우스)
2day	시만토초	【미시마 캠핑장: 투망 던지기 체험·사우나·강놀이】—【미시마 캠핑장: 지역 주민과의 오찬회(향토 요리 만들기)】—【민박 Carpe Diem Kamaida(바비큐, 별 구경)】	Carpe Diem Kamaida
3day	오치초	【크리스탈 카약 체험】—【나카츠 계곡】—【게스트하우스 '엔(縁)' (오너 부부와의 교류회 및 식사 모임)】	게스트하우스 縁
4day	고치시	자유 산책 또는 고치 시내 관광	

Day1 | 바다에서 시작되는 ——‘자연과 함께 일하는’ 어촌의 아침

*** * 전날 고치에 도착하여 고치 시내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아침 항구로 어선들이 돌아오고 생선이 분류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곳에는 관광객을 위한 인위적인 연출이 없습니다.

오직 매일 반복되는 '생업으로서의 어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상황에 맞춰 간단한 어업 체험이나 항구 견학을 하고, 점심 식사로는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소박한 어부 요리를 맛봅니다.

오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시만토강으로 향합니다.

야카타부네(지붕이 있는 전통 배)를 타고 뱃사공에게 시만토강과 그곳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청류'라 불리는 시만토강의 풍요로움을 만끽합니다.

강변을 천천히 거닐며 일본의 옛 정취가 느껴지는 풍경을 감상한 뒤, 농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밤에는 현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습니다.

동네 이자카야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직접 어울리며 그곳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호텔'이 아닌,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1일차 이미지 사진



어부 체험

야카타부네(지붕 있는 유람선) 및 침하교 산책

Day2 | 풍경 속을 달리다 ——소도시의 일상을 느끼는 자전거 여행

미시마 캠핑장

****우천 시: 시폰 & 잼 만들기 체험으로 변경**

점심 식사: 미시마 캠핑장에서의 물놀이 및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마솥 밥 짓기 체험.

저녁에는 숙소에서 바비큐를 즐기거나 별을 관찰합니다.

낮 동안의 생활 체험과는 달리, 자연에 둘러싸인 고요한 밤을 보냅니다.



가마솥 밥 짓기 체험



↑ 미시마 캠핑장 사우나



↑ 미시마 캠핑장 아궁이 체험



투망 체험

Day3 | 맑은 물과 가정 ——산촌에 산다는 것—— 손님 ‘비일상’, 주민의 ‘일상’에 참여하기

니요도가와
투명하게 흐르는 강변을 거닐며 크리스털 카약
체험과 물놀이를 즐겨보세요.
화려한 액티비티보다는 '그저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 * 우천 시: 화지(일본 종이) 체험 + 이노초 거리
산책으로 변경**

오후에는산골마을로 이동하여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좌식 식탁에 둘러앉아 주인장인 가네하라 씨 부부와 소규모
교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해 온 가네하라 씨로부터
고치의 역사, 강과 사람의 관계, 인구 감소의 현실, 그럼에도
이곳에 계속 사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날 밤, 참가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일시적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거나
목욕, 별 구경 등을 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